

‘은빛 역사’ 이상혁 “금메달로 더 역사적인 날 약속”

유진 세계선수권 2m35로 2위
김현섭 이어 한국 육상 새 기록
부다페스트·파리서 우승 각오

한국 육상에 첫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선물한 이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더 높은 곳을 바라봤다.

이상혁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로 2위에 오른 뒤 AP통신 영상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기분이 정말 좋다”고 씩씩하게 말했다.

2m37을 뚫 ‘현역 최고 점퍼’ 무타즈 에사 바심(31·카타르)에게 넘긴 ‘금메달’을 다음 메이저 대회에서는 꼭 목에 걸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이상혁은 “또 세계선수권, 올림픽이 남았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 노력해서 금메달을 따는 ‘더 역사적인 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대한육상연맹을 통해서는 아쉬운 순간도 돌아봤다.

그는 “2m33에서 3차 시기까지 가는 등 경기 운영이 다소 매끄럽지 못해서 아쉽다”며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최선을 다했다. 바심의 컨디션이 더 좋았다”고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한 바심을 예우했다.

이날 이상혁은 2m19, 2m24, 2m27, 2m30을 모두 1차 시기에 넘겼다.

2m33 1, 2차 시기에서 실패해 위기에 몰



19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 있는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이상혁이 도약해 바를 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렸지만, 3차 시기에서 완벽한 자세로 바를 넘었다.

이상혁은 2m35도 2차 시기에 넘어 은메달을 확보했다.

바심이 1차 시기에 2m37을 성공하자, 1차 시기에서 2m37에 실패한 이상혁은 바를 2m39로 높여 ‘역전’에 도전했다. 하지만, 아쉽게 두 번의 시도에서 2m39에 막혔다.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었던 이상혁은 ‘KOREA’가 적힌 자신의 가슴을 가리킨

뒤, 거수경례 세리머니를 했다.

한국 선수 중 실의 경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20km 경보의 김현섭(2011년 대구 동메달), 단 한 명뿐이었다.

그러나 이상혁이 높은 벽을 경쾌하게 넘어서면서, 한국에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가 탄생했다.

유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경기 뒤 곧바로 이상혁에게 메달을 전달해 우승 세리머니를 하게 했고 ‘간이 시상식’도 열었다.

‘공식 메달 세리머니’는 한국시간으로 20일 오전에 열렸다.

이상혁의 말처럼 ‘더 역사적인 날’을 만들 기회는 연달아 찾아온다.

2021년 도쿄올림픽, 2022년 유진 세계선수권에 이어 내년에는 3월 중국 난징 세계실내선수권, 8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 예정돼 있다.

2024년 7월에는 파리올림픽이 개막하고, 2025년에는 도쿄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

린다.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한 ‘현역 최고 점퍼’ 바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른 이상혁에게 ‘세계 챔피언’에 도전할 기회는 2023년, 2024년, 2025년에도 있다.

이상혁은 늘 ‘우승’을 목표로 도약한다. 올해 9월에 전역하는 이상혁은 ‘예비역’으로 한국 육상 사상 첫 세계선수권 첫 우승, 트랙&필드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에 연이어 도전한다. /연합뉴스

태권도원배 전국선수권대회 광주체고 남녀동반 종합우승

광주체육고등학교가 최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제8회 태권도원배 전국선수권대회에서 남녀 동반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남녀 동반 종합우승은 1972년 광주체고 개교 이래 처음이다.

광주체고는 여고부에서 금메달 3개, 남고부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여고부에서는 김가현(2년)이 라이트급, 김지연(2년)이 웰터급, 박시현(1년)이 라이트헤비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광주체고에 종합우승을 안겼다. 준우승은 고양고(금2 은2), 3위는 부천정보고(금1 은1 동2)가 차지했다.

남고부에서는 나정후(1년)가 라이트급



광주체육고등학교가 최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제8회 태권도원배 전국선수권대회에서 남녀 동반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고 제공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재희(1년)가 헤비급 은메달, 이정훈(1년)이 라이트미들급 동메달을 거머쥐며 종합우승 위업을 달성했다.

광주체고 권은진 코치(여고부)와 김의철 코치(남고부)는 각각 최우수지도자상을 받

았다.

이번 대회는 전북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3,000여 명의 선수, 그리고 900여 명의 지도자와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최진화 기자

광주시체육회 김가혜 회장배스쿼시 정상

올 시즌 두 번째 ‘금’

광주시체육회 김가혜(41)가 제16회 회장배스쿼시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김가혜는 19일 전북체육회관 내 스쿼시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결선에서 국내 랭킹 1위 인천 연화영을 3-2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그는 제6회 광주시장배 전국실업스쿼시선수권대회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가혜는 32강 부전승, 16강 경남 광다연(3-1 승), 8강 울산 서하민(3-1 승) 등을 누르고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에서는 올해 한국체대를 졸업하고 광주시체육회에 입단한 실업팀 새내기 송동주를 3-0으로 제압한 뒤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날카로운 드라이브샷과 탁월한 경기 운영 능력을 앞세워 최정상에 등극했다.

김가혜는 “사실 대회 준비 도중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몸이 좋지 않았다”면서 “대회



광주시체육회 김가혜가 제16회 회장배스쿼시 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에서 우승했다. /최진화 기자

기간 부상 부위를 철저히 관리해준 광주 스포츠과학센터와 최상의 조건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박한솔 감독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8월에 열리는 코리아오픈에서도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진화 기자

나현주, 회장배중고육상 금빛 레이스

(광주체고)

남고 1학년부 100m 우승

강철현 남고부 200m 동

박강빈 멀리·세단뛰기 동

광주체고 나현주(1년)가 지난 15-18일 강원 정선에서 열린 회장배 제20회 전국중·고등학교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나현주는 대회 남고 1학년부 100m에서 11초12를 기록, 손호영(경기체고·11초46), 유환희(강원체고·11초49)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임재운, 강철현, 양창식과 호흡을 맞춘 남고부 4×100mR(42초31)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나현주는 남고부 200m에서 22초26으로 7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초등부시절 학교대표로 육상대회에 나서기도 했던 나현주는 레슬링 등 다른 종목도 경험하다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본격적으로 육상에 뛰어들었다.

지난 4월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4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나현주는 지난 5월 춘계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대회 남고1학년부 400m(49초56)에서 우승, 고교 진학 후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달에는 제13회 한국U18육상경기대회 4×100mR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제13회 한국U18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과 4×100mR에 출전, 대회 2관왕을 차지했던 광주체고 강철현(2년)은 이번 대회 남고부 200m 동메달(21초78), 4×100mR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1위를 한 서울체고(42초23)과는 간발의 차였다.

김현덕 광주체고 코치는 “나현주가 1학년부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고, 2·3학년 형들과의 경쟁에서도 순위권에 드는 등 좋은 결과를 얻어 내년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체고는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더했다.

박강빈(2년)이 여고부 멀리뛰기(5m47)와 세단뛰기(11m34)에서 각각 동메



나현주

달을 거머쥐었고 박준희는 남고 1학년부 높이뛰기에서 1m90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체고도 메달레이스를 펼쳤다.

서은영(3년)이 여고부 5,000m에서 우승(19분16초25)했고, 유지용과 김기현이 남고 1학년부 400m 1·2위를 차지했다. 차태웅도 남고 1학년부 포환던지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다운은 여고 1학년부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최진화 기자

프로배구 컵대회 여자부 일본 우승팀 출전

페퍼저축은행 첫 참가

프로배구 컵대회에 해외 구단이 4년 만에 참가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9일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에 지난 시즌 일본 V리그 우승팀인 히사미쓰 스포링스가 출전한다고 밝혔다.

히사미쓰는 지난 시즌 일본 프로배구 디비전1(1부리그)에서 23승 10패의 성적으로 3위를 차지했고, 포스트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JT마블러스를 꺾고 우승했다.

해외 초청팀이 컵대회에 참가한 건 2018년 남자부 JT 신다스(일본), 여자부 EST(태국), 베네팅크(베트남) 이후 4년 만이다. 히사미쓰는 2007, 2009 한일 V리그 탑

매치에도 출전한 경험이 있다.

이번 대회엔 제7구단 페퍼저축은행도 처음으로 참가한다. 지난해 창단한 페퍼저축은행은 선수단 구성을 마치지 못하면서 지난해 컵대회엔 출전하지 못했다.

여자부는 히사미쓰, 페퍼저축은행의 참가로 지난해보다 2개 팀이 늘어난 총 8개 팀이 경쟁한다.

이번 대회엔 국내 무대로 복귀한 김연경(흥국생명)도 참가할 예정이라 큰 관심을 끈다.

여자부 경기는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다.

남자부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국군체육부대(상무)가 참가해 총 8개 팀이 경쟁한다. /연합뉴스